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6월 7일(금)
(음력 5월 5일)
Пятница
7 июня 2019г.
№ 22(11683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메츠타>무용센터의 예술단과 <에트노스>예술학교 러시아민속과 보컬앙상블이 일본 요사카이 소란 국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협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체호브센터 앞마당에 있은 리허설에서. **(이예식 기자 촬영)**

새고려신문

2019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7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사할린주, 연송어 성어기 6월 16일 시작

6월 16일부터 사할린주에서 연송어 성어기가 시작된다. 이 기간에 사할린 기업들에게 허락된 어획 허가량은 송어 2000톤, 연어 1700톤, 네르카 1300톤과 키주츠 400톤으로 한정되었다. 이 연송어의 어획은 주로 세웨로쿠릴스크 수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연송어 성어기 어획은 8월 31일로 마무리된다.

친애하는 여러분!

6월 12일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념일을 맞아 사할린주 정부를 대표해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날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선포가 승인된 날로 기념하게 된 이 사건은 러시아 연방 설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곤경도 있었으나 우리는 앞만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지역 및 전체적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독립적인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우리의 손과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할린과 쿠릴섬이 개선되도록 변화해가길 멈추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번영과 최고의 것을 기원합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대행

사할린 동포는 행방불명의 강제징용자 유족들의 마음 잘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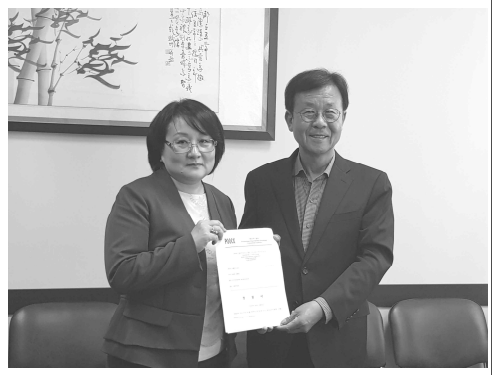
지난 4일(화) 대한민국 국회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 잔류 유족회 신윤순 회장이 유가족 10명과 함께 사할린을 방문했다.

오후 5시에 사할린한인문센터를 찾아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비룻)를 비롯한 동포 단체장과 한인언론사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들의 주요 목적은 사할린에 강제동원 된 부친과 조부의 흔적, 또는 묘를 찾는 데 있다.

만남의 자리에는 주 유 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곽기동 소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노인협회 김홍지 회장·김종길 부회장, 주이산가족협회 박경춘 회장, 새고려신문사 배 윅토리아 사장, 우리말방송 김춘자 국장, 주한인협회 청소년부 이 세르게이 담당 등이 나왔다.

이날 신윤순 어르신은 일제강점 아래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 회장이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특별위원인 자신이 애타게 찾는 부친에 대한 사항과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사할린을 방문한 유족들을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동포단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유족들에게 협조 및 여러 제안과 질문을 던졌다. 유족회 측은 한인묘지 조사와 강제징용자 유골 봉환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에게 특히 고마움을 표했다.

친척 찾기, 사람 찾기에 무상으로 협조하는 새고려신문도 방문한 유족들의 사항을 신문에 게재하기로 했다. (첫 관련 자료 이번 호 3면에 게재).



사할린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원혜영 국회의원에게 청원서 전달.

회의에 참석한 원혜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 법이 통과하도록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미 한국에 발송한 청원서(청원서와 함께 두 개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분석 내용과 제안)를 직접 원혜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공식회의가 끝났지만 참석자들은 자식의 도리로서 아버지의 묘를 끝까지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등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일곱 가족을 대표하는 10명의 유족들은 4박5일간 스미르늬흐 구역, 포로나이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공동묘지를 찾아 다니며 힘든 참배일정을 가졌다.

이 비극은 언제 잊혀지고 강제징용자 유족들은 언제 위로가 될까…

(본사 기자)

사할린주 사회원 의장으로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 재선

6월 3일(월) 제6기 사할린주사회원 위원들의 첫 회의가 소집되었다. 첫 의정 문제는 위원장 선거문제였다. 의장으로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가 만장일치로 재선되었다.

이날 사회원에 7개의 위원회들이 구성되고 위원회 위원장들과 부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이들의 활동 영역도 정해졌다.

사회원 부의장으로는 갈리나 쥬바, 윅토르 고르바츠가 선출되었다.

첫 회의에 참석한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대행은 제7기 사회원 위원들에게 축하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기원했다.

사회원은 전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첫 10명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다음 10명은 주두마가 승인하고 나머지 10명을 이미 선정된 사회원 20명이 추천해 승인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교장과의 협의회의 가져

지난 5일(수)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에서 주내 한글학교 교장과의 회의가 열렸다. 김 원장에 따르면 현재 사할린에 한글학교 11개가 있다며 한글학교는 주로 지방 한인회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후원 일부는 재외동포재단이 하고 있다. 지방한글학교 외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가 운영하는 세종한글학교, 사할린한인문화 센터 소속, 코르사코브 태권도학교 소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오스트로브>무술센터 소속의 한글학교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희망자들이 있는데 한글학교 다수가 교사와 공간 부족 등 이유로 한국어 수강생 수를 많이 확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글학교 교장들은 운영법의 경험도 공유했다.

2019년 6월 1일 – 신문 창간 70주년

살기 좋은 사할린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사할린,
살기 좋은 사할린에는,
우리말 방송도 있고,
새고려 신문사도 있습니다.
6월 1일 새고려 신문사 창간 70주년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사할린,
맑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너도 나도 새고려 신문 창가 70주년을 축하하여....
글짓기 체험 수기에 1등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있습니다,.
살기 좋고 경치 좋은 내고향 사할린,
사할린 앞으로 더 아름다울 것이다.

크라스노 고르스크 김 련화
2019년 5 월

친애하고, 존경하는 새고려신문사 일동 여러분

금년 2019년 6월 1일이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오니 제가 애독자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할린에서 우리의 한인들에게는 새고려신문이 없으면 안 되지요. 신문을 읽어야 사회가 어떻게 되어나가는지, 훌륭한 인재들의 모범이 되는 인터뷰, 여러 가지 광고로서 알게 되지요. 신문은 우리들의 독본이자 모든 일에 모범이 되게 알려준 글들, 한인의 예술, 문화에 대하여 사진과 글이 나오면 나 역시 기분이 좋아져요.

배 윅토리아 사장님과 여러 사무원들을 오늘날까지 많이 고생을 하셨지요. 앞으로도 좋은 기사들을 써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장님과 사원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고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애독자 전채련, 1931년생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사할린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CIS, 한국과 기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진정 사할린동포라면 누구나 남다른 애정을 느끼는 우리 신문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70년간 사할린 한인 전통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주시길 바라면서 배순신 편집장님을 비롯한 이예식 형, 장세복 님, 신정자 님, 박혜신 님 등 본사 사원일동의 건강과 새로운 창작의 성과를 기원합니다.

신문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억에 가장 남은 에피소드라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1980.12월에 취직 관련 신문사를 찾아서 첫 면접을 하게 되었던 게 우선 기억에 남는군요.. 김콘스탄틴 편집장님(주필)이 제가 이전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물으시길래 어느 자동화연구소 전산실에서 엔지니어로서 대형컴퓨터 (инженер вычис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Большой электроннно-счётной машины БЭСМ-6)를 다루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소련에서는 아직 개인용 컴퓨터 PC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때였음).

이에 편집장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컴퓨터가 뭐가 재미있지, 기자로서 활동하는 게 정말 재미있고 훨씬 낫다"고 하신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불과 15-20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이 온통 전산화, 디지털화되고 개인용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없이는 지금의 우리 생활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시대가 온 걸 보면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수록 그때 옛 시절이 그립고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에 떠오를 때마다 감개무량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또 한 번은 80년대 중반, 사원들이 모여 환담을 나누던 자리에서 어느 분이 왈, "내년이면 연금수령자로서 은퇴할 예정"이라고 하시길래 나머지 분들이 "나는 언제 은퇴하게 될까?"를 주제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2007년에 가서야 연금생활을 할 수 있을거라고 말씀드리자 선배님들이 한편으로는 은근히 놀라거나 '넌 아직 멀었구나'하는 눈치였고 한편으로는 젊음을 부러워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도 한순간,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그나마 다행히도 이젠 영주귀국의 길이 열려 대다수 선배님들이 한국에서 여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성점모 선생님, 박장녀 선생님, 안춘대 선생님, 석혜경 선생님...

최근에 만나뵌 이 분들과 그리고 아직 뵈올 기회가 없었던 생존하신 여러 선배님들, '60 청춘 90 환갑'이라는 이 시대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백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수만,1952년생, "레닌의길로"지
근무시기: 1980.12.15 – 1990.02.19
번역원, 기자, 편집부 부국장 역임,
현재 모스크바 거주

본사에는 계속 본지 창간 70주년 관련 축하문이 들어옵니다. 애독자들의 신문 사랑 고백들과 본사에 일하셨던 선생님들의 글을 게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장녀(80)입니다.

윅토리아 사장을 비롯 모든 사원 여러분들에게 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건강과 성공, 인내심을 기원합니다. 당신들의 헌신에 엎드려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나는 1967년에 처음 신문사에 입사했는데 가정 사정으로 그만두고 1970년에 다시 신문사에 취직했습니다. 서한부 직원으로, 문화부 기자, 문화부 부장으로 일하다가 1992년에 아들 병으로 인해 신문사에서 사퇴했습니다.

나는 우리 화목한 사원 일동을 잘 기억합니다. 상황에 따라 진지하고 때로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농담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명절도 같이 보내구요.

뭐가 또 기억에 남았느냐 하면 공상당위원회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밤을 새서 신문발행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번역원들은 타스 통신사의 자료를 번역했으며, 기자인 우리는 함께 이 번역 자료를 읽고 각 문자 검열하던 일이 생생합니다.

현재 나는 영주귀국해서(2009)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복과 건강, 기쁨을 기원합니다.

나는 항상 내 신문을 잊지 않고 있어요.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9년부터 2004년까지 새고려신문사에서 교정원으로부터 상급기자로 근무해왔던 이복순(74세)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 남양주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선, 신문의 창간 70주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러시아 극동에서 한국어로 발간되는 단 하나의 신문이 그동안 여러 명칭을 바꾸었고 물질적 및 정신적 역경을 극복하면서 다행히도 오늘까지 이겨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독자들의 알고 싶은 소식을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고려신문이 출발을 한 지 어느덧 70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독자들의 관심 많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순신 사장님을 비롯한 기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문이 앞으로 더 성장하여 독자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사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주시리라 생각하며 소중한 애독자 여러분들도 새고려신문을 계속해서 사랑해주시리라 믿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고려신문의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원 일동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신문사에 일하면서 제일 기억되는 에피소드는 정치란에 기재되는 공식자료에 저의 불찰로 "국제주의" 대신 "제국주의" 오서로 신문이 발간되었어요. 그당시 신문은 주공산당뷰로위원회 기관지였으니까 더욱더 조심해야했어요. 물론 "바로잡기"도 나가고 지도부에서 큰 주의도 받았으며 마침 5.1절 명절에 즈음하여 시상될 상금도 포기해야했습니다.

하여간 신문사에서 일해온 시간들은 영원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것입니다. 처음 입사할 적에 저희를 신뢰하고 창작상 여러면으로 받들어주신 고 이한표, 고 배영숙, 박장녀 선배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싶습니다.

이복순 새고려신문 상급 기자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실용 컨퍼런스에서 사회적 사업 논의 예정

6월 2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의 사회적 기업' 실용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회의의 목적은 사할린 지역의 사회적 사업 개발에 대한 논의이다.

참가자격 : 사할린주 비영리 단체의 지도자, 활동자, 기업가, 사업가, 관심이 있는 사할린 주민, 지방자치단체 의원, 입법부와 행정 당국 대표, 사할린 지역 미디어 등

회의 프로그램:

-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 전시
- 본회의 (공무원 연설, 청문회)
- 커피 브레이크
- "원탁모임"– 보고서 토론, 회의 결의 채택

회의 참가신청 및 자료 제출은2019년 6월 17일까지이다.

e-mail: i.korzhova@sakhalin.gov.ru.

전화 문의 : 8 (4242) 424230, 사할린 주 사회원 홍보실이 보도했다.

На 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судят социальн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оциальн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ится 28 ию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Цель конференции — обсуждение проблем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ся: лидеры и активисты СО НК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инициативные граждане, члены общественных совето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ограмме конференции:

- выставка продукции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выступления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заслушивание заявленных докладов);
- кофе-брейк;
- "круглый стол" — обсуждение докладов, принятие резолюции конференции.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ференции и тезисы докладов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7 июня 2019 года, e-mail: i.korzhova@sakhalin.gov.ru.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424230,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인구 자연적 감소

1월부터 4월까지 사할린주에서 자연적 인구의 감소가 나타났다. 신분등록사무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801명, 사망자 수는 2120명이었다. 인구의 자연적 증가 수는 319명이었다. 2018년 같은 기간 동안에 자연적 인구증가는 201명이었다. .

(8면에 계속)

지난 4일(화)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 잔류 유족회의 주최로 사할린을 찾은 유가족중 박춘자 씨와 그의 아들 이주용 씨.

이 가족은 박성학 님의 흔적을 찾고 싶다.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징용자 박성학 님의 생전 사진 및 가족사항

성명 : 박성학(朴性學) 밀양박씨
생년월일 : 1919년 1월 11일생
본적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191번지
배우자 유삼순(柳三順)
생년월일 : 1919년 8월 25일생
박학님의 자
성명 : 박춘자(朴春子)
생년월일 : 1943년 12월 10일생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시내1길 35
연락처 : 010-2445-0525
010-8480-0525
박성학님의 부모
부 박덕래(1887년 7월 25일생)
모 백정기(1902년 1월 10일생)

♥가족사항 및 그리움♥

딸인 박춘자(朴春子)님이 아버지 박성학(朴性學)님을 77년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부친 박성학님은 1919년 1월 11일생으로 배우자인 유삼순(柳三順)님과 1938년 3월 19일 혼인을 하였으며,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191번지(1943년 9월 강제징용 당시 살던 곳)에서 지내셨습니다.

박성학님은 1941년에서 1943년까지 2년간 군복무를 마쳤으나 1943년 9월 강외면 상정리 마을 이장에 의하여 재징용 되었으며, 이후 사할린으로 가셔서 지금까지 생사미상입니다.

박성학님이 1943년 9월 징용을 당한 후 3개월 뒤인 1943년 12월 10일 딸 박춘자(朴春子)님이 출생하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인 박성학님의 생사 및 소식을 알고 계시면 박춘자님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4일 박성학님을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방문한 사할린에서 딸 박춘자 올림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박성학의 유족 박춘자의 삶의 역정

박춘자 생년월일: 1944년 12월 10일

(부친 박성학 1919년 1월 11일생. 1943년 9월 사할린 강제징용 1980-90년경 사망 추정)

1. 2005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에서 위패 봉안까지 과정

살아 생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사진 속으로나마 떠올리며 60여 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부친에 대한 그려움은 점점 원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1960년 중반부터 생사 확인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다 하였고, 1990년에는 친지분이 사할린까지 방문하였으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당시를 증언해 주실 분들이 나이가 들어 하나, 둘 세상을 떠나 이를 증명할 자료도 없는 어렵고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 범정부 차원에서 일제강제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하여 부친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고, 그 후에 5년이 지난 2010년 2월에서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심의 · 결정 통지를 받게 되어, 그해 8월 천안의 망향의 동산에 부부위패 봉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0여 년 동안 먼 이국 사할린에서 한 많은 삶을 사시다 가신 부친의 넋을 다소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어 유족으로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2. 인내로만 살아 온 박춘자(유족으로서)의 한 많은 삶의 굴곡

모친(유삼순)이 저를 가진 지 6개월째인 1943년 9월. 부친(박성학)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하였고, 3개월 뒤인 1943년 12월 10일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모친은 저를 출산한 직후 개가를 하게 되자, 조부(박덕래)께서는 저를 1년 후인 1944년 12월 조부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친뿐만 아니라 모친의 얼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마음 속에 사무쳐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조부의 호적에 자로 등재되어 생활하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를 거쳐 나이가 들어서까지 호적상 조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였고 고모, 삼촌들이 언니 오빠가 되었기에 실제와 맞지 않는 인상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으나 인내하고 감수하였습니다.

운명이기에 인내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며 누가 무슨 말을 하던지 참고 또 참고 평생 인내하며 속을 태웠습니다.

60여 년을 부모 없는 설음도 속으로 삭이며 참았고, 호적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삶도 그저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누가 부모님 존함을 물으면 얘기하기도 어려워했으며, 자녀들이 이를 묻기라도 하면 제대로 말해 주지도 못했던 것이 다반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삭이기 위해 그저 인내하였고, 보고 싶은 그리움도 표현하지 못하며 속만 태웠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조국 땅을 밟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고향을 그리워하여 1980년대까지 사할린에서 살았을 부친을 생각하며 당신의 인내도 나의 인내로 승화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흘러 사람의 발자취조차 없어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이 세상에 맺힌 한이 더욱 응어리로 남아 커지기만 합니다.

이제는 세월을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한많은 삶을 살았을 부친에 대한 유해라도 발굴하여 고향에 묻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려 합니다. 인내하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시간이 많지 않기에 사할린 지역에서 잠드신 영혼을 하루 빨리 송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며 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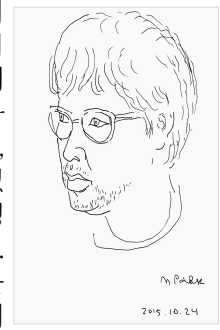
부모와 형제자매 없는 사고무친으로 평생을 살았으나 지금은 제 손으로 부친의 유해라고 빨리 수습하여 고국 땅에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 하려 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인내로 살아온 박춘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너를 기다리는 동안 / 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서성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설레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서성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지난 해 코르샤코프를 방문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망향의 언덕'에서 바라본 바다는 참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들렀거든요. 바다는 예의 그 넓고 깊은 푸른색으로 따사로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기념하는 사진도 촬영하고, 모처럼 볕이 좋아 한참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때였나요. 문득 저 바다만큼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 바다는 알고 있을 거라고. 바로 저 바다만큼은 그 모든 슬픔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불과 칠십여 년 전 어느 날이겠네요. 우리 한인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말이에요. 소름조차 돋지 않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못 할 그 끔찍한 '긴 이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토록 서글픈 역사가 세상천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운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훔치시며 흐느끼셨을 우리 한인 어르신들의 슬픈 그림자가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새고려신문사>의 7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그 모든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던 귀한 지면입니다. 우리 말을 꿋꿋이 지켜낼 수 있도록 애써주셨던 사할린의 모든 한인 어르신들께도 새삼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운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야 어찌 지울 수 있겠습니까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한인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이제 사할린의 후손들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미안하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2019.05.28.

[왜냐면] 일본 중재 요청 거부가 능사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법적 과정을 문제 삼아 중재 요청을 했다. 한편으로는 중재라는 법적 대응을 하며, 다른 한편으론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며 정부를 수세로 몰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을 합법적인 것이라 강변해왔다. 또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며 외면해왔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대응이 '적반하장'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중재 거부가 능사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일본이 요청한 중재는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 제3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중재 요청 자체는 협정이 정하고 있는 분쟁 해결 절차이므로 나무랄 게 없고 자못 '쿨'해 보이기도 한다. 협정상 중재는 사전에 한-일이 양국 간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한 것이므로 한국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법의 일부인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장해온 대로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헌법상 문제도 발생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청구권 협정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결정했다.

응할 경우 문제를 어떻게 구성해 중재에 맡길지가 핵심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무효 또는 관련 사법 절차의 무력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거꾸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내야 한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Числ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увеличится до 180-т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11 странах будут открыты 13 нов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в 60-ти странах мира будут работать 180 таких цент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среду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учреждения, которые содействую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первые откроются в четырёх странах - Лаосе, Сербии, Сальвадоре и Туркменистане. Центры, названные в честь короля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торого был изобретён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Хангыль, были впервые открыты в трёх странах в 2007 году.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497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133
тел.: 49-84-02

Вспоминая прошлое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14, 15, 16, 17, 18 , 19, 20, 21)

В 1960 году проходил Всесоюзный фестиваль творческой молодежи. Под эгидой фестиваля в областном драматическом театре им. А.П.Чехова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корейского эстрадного ансамбля. Молодые исполнители подготовили большую и разнообразную программу, в которой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и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Тен Ин Мука исполнил фантазию на тему народной песни «Доради», солистка Пак Чун Хва спела песню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После дождя», солист Ким Ен Чер исполнил национальную песню «Две тысячи ли». Выразительно исполнили артисты народные танцы. Яркие костюмы, оригинальные декорации и изображ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пейзажа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успеху концерта. Обоял всех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в зале конферансье Ким Ги Бон. Артист начинал работать в ансамбле с первых дней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затем учился в Москве в студ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атра эстрады, а после его окончания вернулся в родной коллектив. Его музыкальные фельетоны, пародии, миниатюры и особенно танцевальная сюита «Фестиваль» вызвали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Ким Чун Су, солистк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ансамбля «Корё»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корейском костюме. 1957 г.

Концерт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ар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го эстрадного ансамбля в составе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оказалась недолгой. Его также сократили за «ненадобностью». Как закрыли перед этим корейск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В этом уже просматривалась определен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линия. Поэтому оценивать эти меры как проявление волюнтаризма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едва ли правильно. Особенно, если учесть : вслед за ликвидацией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настала очередь ре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Их перевели в 1963 году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обучения, а корейское отделение при Поронайск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училище попросту закрыли. А.П.Кузин, посвятивший обстоятель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с4удьб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корейцев, пишет по этому поводу:»В середине 60-х годов процесс формиров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ейцев был прерван. В те годы господствовал насаждаемый «сверху» взгляд, что в Советской стране все русское должно входить в жизнь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И оно «входило», это русское, не оставляя места д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театр, как и созданный позднее на его базе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нцертно-эстрадный ансамбль, ликвидировали по причинам, никак не связанным с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этого самобыт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Накануне закрытия у театра на самом деле хватало творческих и иных проблем. Но эти проблемы не оставляли театр и раньше. Их можно было преодолеть, ведь в составе труппы работало немал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 талантливых артистов в расцвете творческих сил. Почти все они вскоре покинут Сахалин. Так, например, Григорий Петрович Ким, уехав в Узбекистан, впоследствии успешно работал главным режиссером Наманга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театра музыкальной драмы и комедии им.Навои, был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заслуженного деятеля искусств Узбекской ССР. Те, кто остался на острове, продолжали в меру сил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Танцовщица Ким Чун Су в конце 60-х годов организовал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ружок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где обучала детей национа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Один из бывших ар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Тен Ду Хан, долгое время преподавал музык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училище. Судьбы немногих других, оста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неизвестны.

К сожалению, материалы сахалинской прессы мало отражали события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Листая страницы газет 50-х годов, редко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рецензии на спектакли или информацию о гастролях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Не увенчалась успехом попытка разыскать актеров, уехавших в Ташкент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Станов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театра было трудным, а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оказалась недолгой – чуть более десяти лет. Но тем не менее театр навсегда вошел в историю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одна из ее интереснейших, хотя и грустных страниц.

И.Цупенкова(Костанова)
(Из книги «Долгая дорога к большой сцене», 2001)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Тел. 43-59-80, 43-67-85.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72-94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Дня памяти павших в боях за родину

В четверг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свящённая Дню памяти павших в боях за родину. На ней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около деся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семьи погибших участников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оккупации 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вно в 10 часов утр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звучала сирен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которой была объявлена минута молчания. День памяти павших в боях за родину являе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и выходным днём. Он отмечался в этом году в 64-ый раз.

Россия доставила в КНДР 3.995 тонн пшеницы в качеств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Россия поставила в КНДР 3.995 тонн пшеницы в качеств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по линии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ВПП) ООН.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в церемонии встречи груза в порту Нампхо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и гла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ПП ООН в КНДР Правин Агравал. Поставка осуществлена в счёт ежегодного обязательного взноса России в бюджет ВПП за 2019 год. По информации посольства, в Нампхо доставлено 2.895 тонн зерна, ещё 1.100 тонн были выгружены в порту Хамхын. В марте и апреле Россия поставила КНДР 4 тыс. тонн пшеницы в счё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взноса в бюджет ВПП ООН за 2018 год.

Объём онлайн-торговли в РК в апреле превысил 9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бъём онлайн-торговли в РК в апреле составил 10 трлн 640 млрд вон или 9 млрд 1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17,2% превысив показатель того же месяц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среду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РК. Онлайн-продажи бытовой электроники и компьютеров увеличились на 18,8%, спрос на одежду вырос на 7,7%,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напитки на 29,2%. 62,8% всех онлайн-продаж в апреле сделано с помощью смартфонов, планшетов и других мобильных устройств. Это на 23,8%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Южнокорейцы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летний отпуск на родине

8 из каждых 10 южнокорейцев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летний отпуск в своей стране.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2.300 человек,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52,6% респондентов не собираются выезжать за границу. Среди мест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оказался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который назвали 37,8% опрошенных. Далее следуют провинция Канвондо (22,9%), города Пусан, Ульсан и провинция Кёнсан-Намдо. В своём большинстве участники опроса собираются в отпуск в конце июля-начале августа, в самый пик сезона отпус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30 лет предпочитают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в отелях.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ыбирает пансионаты. При выборе места для ночлега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цене (40,1%), наличию бассейна и других удобств (35,6%), а также чистоте заведения (35,1%).

Фильм "Паразиты"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Паразиты" спустя пять дней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экраны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4 млн человек. Фильм буде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ся в 190 странах мира. Его уже показали во Франции, на очереди Гонконг, Сингапур и Австралия.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новинку увидят россиян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ает показ фильма в странах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и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New York Times пишет о возможной номинации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на премию "Оскар".

Пост охраны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получил статус объект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ервый пост охраны, установленный с южной стороны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в 1953 году соглашения о перемирии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получил статус объект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среду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К, он расположен в уезде Кос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жкорейским военным соглашением от 19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т должен быть демонтирован, однако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охранить его с учётом истор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объекта.

(RKI)

С каторги на концерт?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е и расстрелянные" чиновники КНДР появились на публике

Привлекше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всеобщее внимание сообщ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о массовых репрессиях среди чиновников КНДР, отвечавших за подготовку саммита с Трампом в Ханое, оказалось, как минимум, частично** неверным**. Один из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политиков появился на концерте вместе с Ким Чен Ыном, а другого "расстрелянного" партократа заметили в здании МИД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помним, что в пятниц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нсервативная газета "Чосон Ильбо" со ссылкой на анонимные источники в КНДР сообщила, что после провала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в Ханое, где Ким Чен Ын и Дональд Трамп не смогли подписать никаких соглашений,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чень сильно разозлился.

Гнев вождя, по версии издания, вылился в жестокие наказания тех, кто 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американцами.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НДР по США Ким Хек Чхоля, а также еще четырех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якобы, казнили, расстреляв прямо на аэродроме Мири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им Ен Чхоля, которого считали "правой рукой" вождя, сослали на каторжные работы в удаленную провинцию Чаган, а переводчицу лидера КНДР отправили в лагерь для политзаключенных за ошибку с передачей содержания слов Трампа во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в Ханое. Утверждалось также, что в политические лагеря отправились еще несколько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не стали спешить с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этой информации, сказав, что для выяснения ситуации нужно время. Впрочем, это не помешало мировым СМИ подхватить версию "Чосон Ильбо", рассказав об очередной волне репрессий в КНДР.

Парад "оживших и вернувшихся" из небытия возглавил зампредседателя ЦК ТПК Ким Ен Чхоль. СМИ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ли рассказ о посещении Ким Чен Ыном концерта, где выступали жены военных. Ким был со своей супругой Ли Соль Чжу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ысшего вое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На фотографии с мероприятия видно, что пятым слева от вождя сидит Ким Ен Чхоль, который, по версии "Чосон Ильбо", должен каторжно трудиться. Присутствие чиновника на концерте было подтверждено и в статье о концерте.

Что-то схожее возможно произошло и с "расстрелянным" Ким Хек Чхолем. Редактор новостного портала NK NewsЧад О'Кэррол в своем аккаунте в Твиттере сообщил, что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лежать окровавленным на аэродроме Ким Хек Чхоля видели в здании МИД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прочем, тут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журналист ссылается лишь на слова своего анонимного источника. Однако после "железобетон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с каторги" Ким Ен Чхоля, версия об "оживлении" Ким Хек Чхоля выглядит заслуживающей доверия.

По поводу переводчицы и других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и казненных" пока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ся, но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и они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либо "вернутся с того света" или из лагерей.

Отметим,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Чосон Ильбо" уже успела прославиться тем, что регулярно запускает скандальные "утки" 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Этому рвению во многом способствует консервативная и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издания. Недавно эта же газета оказалась в центре скандала, когд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один из ее ведущих журналистов приписывал известным экспертам те или и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которых специалисты никогда не делал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которым оправданием может служить тот факт, что не все сообщения этой газеты про КНДР оказываются выдумками.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некотор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Кроме того, закрытост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невозможность быстро проверить информацию также провоцируют разного рода слухи.

Многие поверили в то, что Ким Ен Чхол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огли репрессировать, так как он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не появлялся на публике. Также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его сняли с поста руководителя Фронта объединения Родины, отвечающего з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НДР. Кроме того, слухи о возможных репрессиях со стороны Ким Чен Ына за неудачу на саммите в Ханое возникали довольно-таки регулярно. Все это 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мнению в стиле "вполне может быть", хотя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по КНДР как в Южной Корее, так и за рубежом сразу говорили, что торопиться с окончательными выводами нельзя.

В целом же это уже далеко не первый случай, когда "расстрелянные" или "сосланные на рудни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лица оказываются живыми, здоровым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ми вождя в поездках. Иногда бывает и так, что провинившихся чиновников в КНДР за какие-то огрех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тправляют проходить "революционное воспитание", которое обычно заключается в тяжелом труде в у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но многие потом возвращаются на прежние или схожие по уровню должност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ая ярмарка» победила на конкурсе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2019»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о 823 заявк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87 участников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из них 5 наград завоевала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Друг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не смогли попасть в число лучших.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ярмарка» одержала Маслениц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этого года ярмарки на островах проходят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ают памятным датам – Пасха, День Победы, День молодежи и другим праздникам. Во время ярмарки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не только торговля по ценам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о и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ая программа. Взрослые и юные посетители 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творче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конкурсах, насладиться выступлениями местны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состоялась в Москве в рамках пят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Неделя российского

ритейла».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ают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осси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ынка ритейла.

– Это наиболее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сфере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в нашей стране. А цель конкурса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 поддержа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пыт российской розницы и стимулировать ее развитие. Мы рады,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решения и идеи признали лучшими на столь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региона Инна Павленко.

«Сахалинскую ярмарку» отметили как одну из лучш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актик.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завоевала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еще четыре награды.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нестационарный торговый объект» победили павильон «Книголюб» и кафе «Мельница». Лучшим магазином назвали «Первый Семейный», а лучшим объектом фаст-фуда – кафе «Питербургер».

Кстати, впервые конкурс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прошел в 2018 году и собрал более 600 участ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ок изо все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превысило 800.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звано выявить и поощрит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 также региона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которые создали условия для успешного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в сфере торговли.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по вопросам цифрового вещания поступило более 1700 звон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лась работа региональной горячей линии, которую организовали для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об отключении аналогов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Этот формат работы стал эффектив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в помощь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 5 марта по 31 мая операторы горячей линии давал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одроб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отключения аналогового вещания. Многие вопросы касалис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помним, малоимущим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компенсируются затраты на по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приема цифрового сигнал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руководства области перечень получателей льготы был расширен – в него вошли также неработающие пенсионеры и жители отдаленных сел, где цифровой сигнал неустойчив.

– Отключению аналогового вещ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больша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 Были приняты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организовано обучение волонтеров. Горячая линия тоже стала одним из этапов подготовки к переходу на цифру.

Звонки принимались по бесплатному региональному номеру: 8-800-100-00-57. Круглосуточно работала также федеральная телефонная линия: 8-800-220-20-02. Сегодня во все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области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ись с прекращением аналогового вещания, поэтому с 1 июня работа горячей линии прекратилась.

В течение почти двух месяцев операторы МФ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вечали на вопросы о выборе приставок,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льгот на их покупку. Если возникали сложности с настройкой оборудования, можно было вызвать волонтера на дом.

– Большинство обращений поступило от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Холмского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В основном звонили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нсультанты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ывали, как правильно выбрать, подключить и настрои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ступило более 1700 заявок на вызов волонтеров.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ходили к людям домой и сами проводил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настройки,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связи министерства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сана Мараховская.

Помощь с переходом на цифровое вещание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казывали 520 волонтеров. Добровольцы прошли специ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в Российской телевизионной и радиовещательной сети (РТРС).

Переход от аналога к цифре – с более четкой картинкой, без помех и искажений –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изошел 15 апреля. Но уже 24 декабря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мотреть 20 каналов в отличном качестве

На время перешивки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на Сахалине действует альтернативная схема движения

РЖД приступили к заключительному этапу перешивки островн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колеи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1520 мм. На время ремонтных работ перевозка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рганизована тремя видами транспорта: поездами, автобусами и самолетами.

Новой схемой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когда по работающему участку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пассажиры едут в поезде, а затем пересаживаются на автобус и следуют до конечного маршрута, сегодня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сахалинцы, направляющиеся поездом № 601/602 из Ногли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станции Поронайск автобусы приняли «на борт» 99 человек. Контроль за процессом пересадки осуществлял лично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ы сделали все, чтобы люди испытывали минимум неудобств при пересадке с одного вида транспорта на другой. Автобусы подходят на максимально близкое расстояние к поезду. Пересадка прошла спокойно, без суеты, - рассказал и.о.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дуард Ри.

Сахалинцы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еслись к новой форме движения.

- Понимаю, что ночная пересадка необходима. Сам процесс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хорошо. Сотрудники пассажирской компании вежливо объясняли, где стоят автобусы. Пожилым даже помогали перенести вещи, - поделился пассажир Федор Снегирё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по перешивке к сентябрю.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чает, что переход на широкую колею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новить парк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техники в регионе.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перевозок, повысить их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уровень комфорта пассажиров.

По данны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время переустройства в схему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С 1 по 27 июня будет закрыт для движения поездов участо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оронайск. В эти дни между Ногликами и областным центром организуют смешанную перевозку пассажиров. Из Ноглик до Поронайска и обратно ежедневно будет курсировать пара поездов из 13 вагонов. На участке Поронайск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автобусы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43 мест. Эти рейсы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по единому билету, которые можно купить на любом жд-вокзале, либо онлайн на сайте pass.rzd.ru.

Кроме того, количество автобусов № 502, работающих на регулярном маршру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оронайск,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до фактической потребности. Пассажиры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и автобусами № 510, курсирующих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 центром и Макаровом.

С 1 по 14 июня на ремонт также закрывают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участок Холмск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ежду Томари и Ильинским организуют автобусное сообщение. Маршрут № 177 Томари — Ильинск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ежедневно, № 215 Томари — Красногорск будет ездить через Ильинское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средам и четвергам. Также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а линию пустят заказной автобус Томари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28 июня по 17 июля движение поездов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щается. В этот период к действующим автобусным маршрутам добавится еще один — № 531 (Поронайск — Ноглики).

На участке Ильинск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июня 2019 года вводится новый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маршрут № 525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расногорск. Кроме того, ежедневно будут курсировать автобусы № 527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Шахтерск и № 523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Углегорск.

С 15 июня пустят пригородные поезда по маршруту: Холмск — Чехов — Томари.

С 18 июля по 31 августа будет закрыт для движения участо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Взморье. Между этими населенными пунктами будут ежедневно курсировать автобусы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43 мест. От Взморья до Ноглик каждый день будет ходить поезд максимальной составности. Проезд на двух видах транспорта организован по единому билету. Кроме того, на маршруте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регулярные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ейсы.

До Ноглик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ожно добраться и самолетом. Борт будет летать семь раз в неделю. Время в полете составит 1 час 50 минут.

Авиарейсы меж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 Шахтерском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трижды в неделю: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средам и пятницам. Время в пути — 1 час 10 минут.

Пригородно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по маршрутам Новодеревенская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ронайск — Победино и Холмск — Сортировочный — Николайчук остается без изменений.

Основной этап работ по переустройству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завершится к концу лета. С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движение поездов на Сахалин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участка Холмск — Шахт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 коле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стандарта.

Три новы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йса с 1 июня выполняю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з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впервые за долгое время отправился самолет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С июня регулярные рейсы свяжу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ью, Хабаровским и Камчатским краями.

Решение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расширить полетную сеть принято в связи с низк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ью островов, которая осложняет жизн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 Чтобы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мы расширяем сеть внутриобластных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авиамаршрутов и сделаем билеты дешевле. В июне к регулярным рейсам в Хабаровск и Владивосток добавятся рейсы еще в тр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Жительница Петропавловка-Камчатского Любовь Останина, гостивша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дна из первых ощутила преимущества нового рейса.

- Сегодня я впервые лечу домой прямым рейсом. Конечно разница огромная - это суще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я времени и денег. Я часто летаю на остров, раньше приходилось добираться с пересадкой, цены на билет очень кусались. Для меня открытие данного рейса большая радость,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женщин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Олонцев пояснил, что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и регионами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 субсидированным тарифам.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стоимость снижена в 2-3 раза.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Благовещенск и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составит 5640 рублей,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 3705 рублей.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требность в рейсах огромная, билеты раскуплены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 сказал Сергей Олонцев.

По мнению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ту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Дрим» Юлии Бак, новые маршруты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среди жителей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У туристов есть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островной природе, к горнолыжному отдыху. К примеру, раньше, чтобы покататься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люди летели из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нередко приходилось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там на ночевку. В итоге, билеты получались очень дорогими, – рассказала Юлия Бак.

Вопрос транспортной логистики сегодня стоит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же разработало спе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на островах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не только авиаперевозки, но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морской и автотранспор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доступности передвижения внутри региона. Впервые было запущено вертолетное сообщение на Курилах, которое соединило Итуруп, Кунашир и Шикотан. С 1 апреля возобновились полеты в Ноглики и Шахтерск. На всех рейсах действует единый тариф –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регистрации. Напомним, ранее цена билетов, например,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зависела от места прописки пассажира.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а для жителей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Ф была в 2,5 раза выше, чем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то ограничивало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на острова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аэровокзала с новой системой обработки багажа и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1,6 миллиона пассажиров. Он должен заработать уже в конц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Также принято принципиальное ре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 главной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региона новой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всем норм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 Работы по зданию аэровокзала выполняютс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Сборка корпуса из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й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показателю 100 процентов. Сейчас специалисты заняты установкой витражных, ограждающих элементов, прокладкой внутренних сетей.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рабочих на стройке - 300 человек, плюс 80 единиц техники, - сообщ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икита Полонский.

На острове идет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перешивке островн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колеи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1520 мм. Она будет завершена к осени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ереход на широкую колею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новить парк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техники в регионе.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перевозок, повысить их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уровень комфорта пассажиров.

Большая стройка развернулась н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ах области. Основной упор – муниципальные дорог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 доле протяженно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автодорог с твердым покрытием находится на 9 мест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на 73 месте в целом по стран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довести протяженность асфальтированных дорог в области до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оставленной задачи увелич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получат на эти цел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1,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рских судов для островов идет на верфях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и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Введение их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амечено на 2022 год. Новые корабли позволят не только увеличить грузооборот и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но и вывести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한인 3세들의 꿈

김민정 극작가

사할린은 섬이다. 우리에게 사할린이 특별한 건 일제강점기에 한인들이 강제징용을 갔던 곳이기 때문이다. 조국이 해방되던 날 북사할린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남사할린 국경을 밀고 내려오면서 사할린은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철수하던 일본군과 점령하려는 소련군 사이에 가장 큰 희생양이 된 것도 한인들이었다. 학살과 포탄을 피해 코르사코프 항구에 도착한 한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배를 기다렸다. 배가 와도 승선권은 일본인에게만 주어졌고, 언덕에 올라 다음 배를 기다리다 영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렇게 45년이 흐른 뒤 88서울올림픽을 TV로 보며 달라진 조국을 보았다. 사할린, 서울, 대구를 잇는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고 일본적십자사 주최로 고국 방문의 길이 열렸다.

사할린에서 한인들 소식을 전해주던 새고려신문이 올해로 창간 70주년을 맞는다. KBS 라디오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지난주 사할린 출장을 다녀왔다. 한인 3~4세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동질감 하나로 금세 가까워졌다. 2006년 파견된 사물놀이 강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물놀이패 하늘. 이제는 유튜브를 보고 사물놀이 장단을 배운다고 한다. 그들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진도에 가서 사물놀이를 전수받는 게 꿈이라고. 3년 전 두 명의 학생이 진도에 다녀왔는데 실력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양이다.

고국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었던 한인 1세대, 부모가 말하는 고향이 어딘지 가보고 싶었던 한인 2세들에 이어 한인 3~4세들에게도 꿈이 있었다. 우리 가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진도에 가는 것. 이들의 핏속에 흐르는 긴 역사를 어떻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 그 한마디를 떠올리지 못해 가슴만 먹먹해진다.

출처 : (조선일보)

남동사할린센터 한국무용반 창작 수업 통해 화합

한국무용반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

남동사할린센터 한국무용반 강좌 진행 중 스카프를 활용한 무용 춤사위 <사진제공=남동구>

남동다문화사업소(소장 심연숙)는 '최고의 학습자를 위한 최고의 교수진'을 모토로 2019년 3월부터 프로그램 강좌를 실시해 참가자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은 스카프를 활용한 무용, 태극부채를 활용한 무용, 뱃노래 장단에 맞춘 바구니를 활용한 무용 등 다양한 민요 음악을 배경으로 우아하고 섬세한 우리 춤사위가 펼쳐졌다.

중등 체육교사(무용 전공)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인 장정아 교수는 "신체적·인지적 기능에 맞춰 한국무용을 창작해 수업하고 있으며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 서로 교감하고 화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무용반 강좌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서로 만남을 통해 웃음과 이야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춤을 배우면서 운동효과와 치매 예방 등 좋은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남동구는 안산시 다음으로 사할린한인 거주 비율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2014년 7월 남동사할린센터 및 경로당을 개관했다.

[인천=환경일보]

일본 중재 요청 거부가 능사 아니다

(3면의 계속)

중요한 점은 일본의 중재 요청에 응한다 해서 한국이 자신이 생각하는 다른 문제를 중재에 회부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점이다. 묵은 현안들인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억류자,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이들, 비시(BC)급 전범 등의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인지 물을 수 있다.

결정엔 1~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정이 나오면 그동안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많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재의 대상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지 과거사 청산 자체가 아니다. 한국이 이긴다 해도 청구권 협정을 대체하든 보충하든 본격적인 협상과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겨야 하지만 질 경우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엔 협정상 구속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협정 위반이 된다. 지게 되면 좁게는 지난해 이후 한국이 취한 사법 절차는 사실상 무효가 되고, 중재 결정에 따른 국내 이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 가해 기업이 한국의 재판 절차로 입은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넓게는 강제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일본에 법적인 배보상을 요구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을 법적 기반마저 사라질 수 있다.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축될 것이다.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중재이지만 비켜 가기는 쉽지 않다. 피해 가기 어려운 중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그리고 한-일 간 '과거' 문제 그러나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일본에 지혜로운 '역제안'을 해보길 기대한다.

한국이 내놓을 새 제안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을 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이 국제법의 장으로 문제를 끌고 간 만큼 관련된 국제법 원칙이 중요하다. 피해자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 기준과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등의 원칙이다.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진실규명 노력도 함께 하자고 할 수 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법학 박사

[우리말로 깨닫다]

망설임은 짧을수록 좋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망설임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심리 상태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어원적으로는 알기 어려운 단어로 보입니다. 어감으로는 마음이 설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민간 어원이네요. 무언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느낌입니다. 밥이 설었다고 표현할 때 '설다' 의 느낌으로 제게는 다가옵니다. 미숙하다의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세국어에서 '설우다'라는 말이 '마음이 편치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음'과 '망'의 유사성은 더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어원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과학성으로 나아가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도 망설이지 말고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보통은 좋은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겠죠. 망설임의 기본 조건은 하기 싫음에 있을 겁니다. 하기는 싫은데 해야 하는 일이거나 하기는 싫은데 누군가의 부탁을 받은 경우에 망설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오히려 망설임이 적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경우에도 망설임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역하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부탁도 어떤 부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부탁이라면 들어주는 게 좋겠지요.

물론 망설임에는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할 때도 망설이게 됩니다.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떠날 때도 망설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겠죠. 아직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시간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가족 생각이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은 망설임의 연속이네요. 결정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의 노래에 '할까 말까 망설이는 나는 못난이'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종종 자신을 바보처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결정을 못하고 괴로워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망설임의 해결책은 어쩌면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면 하고, 하기 싫은 거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쉽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망설이는 거겠죠.

저는 망설임과 시간의 관계도 생각해 봅니다. 하기 싫은 일은 망설여야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괴로움이 큽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해야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괴로움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결정에 대한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망설임이 많으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닌지에 기준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빨리 내릴수록 좋습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일 때도 하고 싶은 전화면, 해야만 하는 전화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면 더 큰 후회가 생길 테니까요. 반대로 하기 싫은 거라면 하지 않는 게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갈 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때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지 빨리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합니다. 후회가 적을 방향을 향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만족스럽습니다. 여행을 갈 때 특히 그렇습니다. 여행은 미리 표를 끊고, 숙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면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망설임이 있을 때 내 마음의 방향을 나를 위한 방향으로 잡아 보세요.

망설임이 있을 때는 마음의 방향을 봐야겠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남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망설임은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사할린주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기록된 주내 5개의 지방자치체는 아니와, 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도시 주변지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였다.

이 시기에 사할린주에 등록된 혼인은 850건, 이혼은 815건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과 같은 시기에 혼인은 910건 이혼은 883건이었다.

사할린 지역 러시아 내무부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사할린과 쿠릴지역에 이주민은 5938명이고 그중 48.6%가 영구 이주민이다. 사할린주를 떠난 5916명 중 77%가 이전 거주지 등록에서 취소되었다. 사할린 지역 내에서는 2130명이 주거지를 변경하였고 이주민 증가 수는 22명으로 나타났다고 사할린 통계국이 전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 январь — апрел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1801 родившийся и 2120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319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8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ляла 201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пя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в Анив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850 браков и 815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910 браков и 883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8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 — апрель 2019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и 5938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48,6%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и 5916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77%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2130 человек. 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22 человека,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тат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러시아산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 등 반입 제한 안내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의 반입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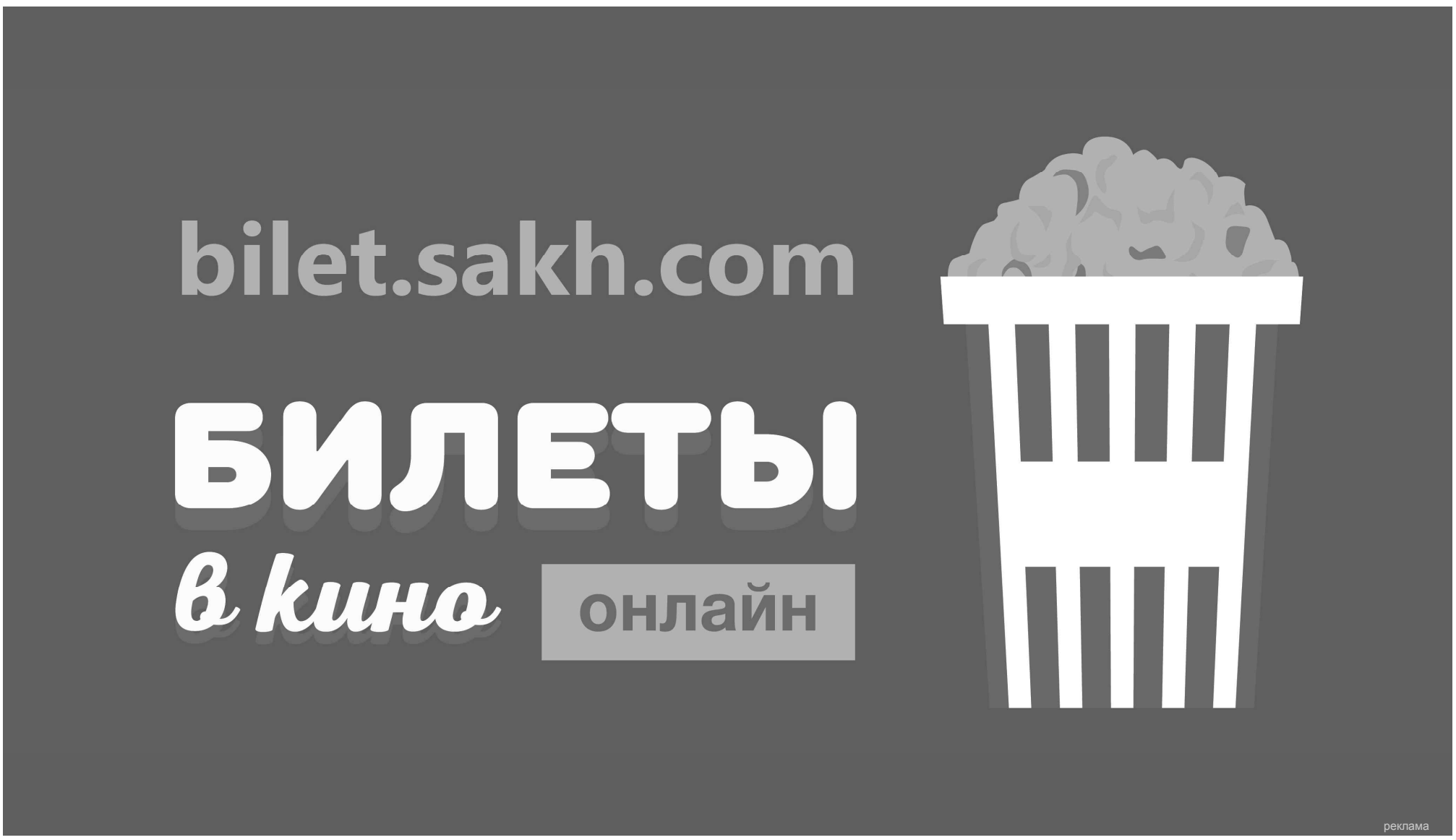
아울러 최근(2019.4.18.) 연해주 나호트카시 "레스나야 오트라다" (블라디보스톡 기준 북쪽 120km소재)사냥터에서도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여행객, 극동지역 진출 기업종사자, 교민들께서는

동 지역과 가축질병 발생지역으로 여행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축산농장 방문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지역 (2019.1) : 연해주 미하일로프스키(블라디보스톡 북쪽 120km), 스파스크(북동쪽 230km)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